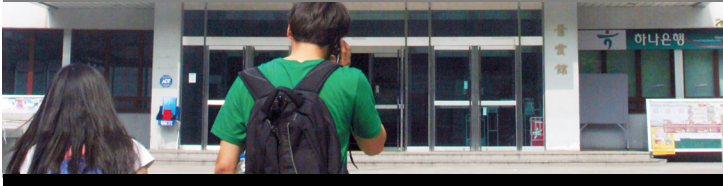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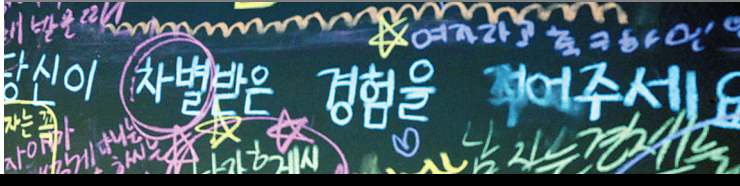


4 »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 “청운관 에너지 자립건물로!”



8 » ‘총여학생회’ 존폐 여부 갑론을박



학사다이어리 – 예비 졸업사정 및 졸업대상자 확인

■ 예비 졸업사정 기간 : 10.1(수) ~ 10.8(수) ■ 졸업대상자 확인 기간 : 10.6(월) ~ 10.8(수)
■ 예비 졸업사정 최종 결과 확인 : 10.16(목) ~
■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내 [수업/성적/상담] - [졸업/전공] - [졸업정보조회] -
‘수강내역포함 졸업진단표 생성’ - ‘졸업진단표 보기’로 확인
■ 유의사항 : 졸업대상자는 ‘졸업논문’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함
(기 이수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 제외)



사진제공: 서울캠프

‘대학다운 대학’ 그 미래를 그린다

서울캠퍼스 가을대동제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가을 대동제 기간 동안 총학생회(총학)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나무숲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방이사, 공간문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6일 경희 미래위원회 출범식 2부 행사였던 ‘경희 65주년, 미래의 화상’에서 조인원 총장에게 총학 박이람(사학 2008) 회장이 대나무숲 프로젝트 결과를 담은 ‘총학 미래리포트’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5면

‘High KHlass’, 진짜 격이 달랐다

대동제 뒷정리 점검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지난 25일 새벽, 학교로 서둘러 향했다. 후문인근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6시 5분, 청소노동자들은 벌써 단과대학 내부 청소를 시작했다. 등굣길에 만난 A 청소노동자는 “오전 7시부터 일하는 시간이지만, 평소에도 규모가 큰 단과대학은 6시 30분이면 청소를 시작한다”며 “축제가간이고 그러면, 적어도 6시부터 청소하겠지...”라고 말했다.

후문에서부터 동의마당-노천극장-청운관-임간교실 순으로 뒷정리상태를 확인했다.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노동자가 당부한 ▲쓰레기 모아놓기 ▲깨진 병 등 분리수거 잘하기 ▲화장실

24일~26일 서울캠프 주점 부스 구역 뒷정리 점검 내용

24일	쓰레기 모아놓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이용	담배꽂초 등 주변정리
동의마당	○	△	X	○
노천극장	○	△	○	○
청운관 앞	△	△	X	△
임간교실 마로니에길	○	○	○	○

25일	쓰레기 모아놓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이용	담배꽂초 등 주변정리
동의마당	○	○	X	○
노천극장	○	○	△	○
청운관 앞	○	○	○	○
임간교실 마로니에길	○	○	○	○

26일	쓰레기 모아놓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이용	담배꽂초 등 주변정리
동의마당	○	○	○	○
노천극장	○	△	X	△
청운관 앞	△	△	○	X
임간교실 마로니에길	○	○	○	△

※ ○=우수, △=보통, X=미흡

청결 사용 ▲가음으로 인한 구토 주의 ▲담배와 가래침 흡연장에 하기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했다. 단과대학 내부는 대체로 청소를 시작한 상태인 만큼,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

동의마당은 전반적으로 쓰레기 모아놓기나 분리수거가 양호했다.

다만 쓰레기봉투를 묶어두지 않아 새벽 사이 쓰레기가 바람에 많이 흩어졌다. 한의과대학 B 청소노동자는 “그래도 예년 축제보다 훨씬 좋아! 새벽에 뒷정리하느라 고생들 많았겠네”라면서도 “화장실 세면대만 조금 더 청결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 단무지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막혀버렸어”라고 말했다. 정경대와 경영대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 역시 “잘 해놨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먼지는 많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전했다.

노천극장 주변의 경우, 문·이과대학 앞은 정리정돈이 잘돼있었지만, 노천극장 내 스탠드는 분리수거 등이 미흡했다. 전날 대동제 개막식과 응원제 등이 진행된 탓이다.

▶3면으로 이어짐

낮가림 없지만, 입은 짧은 너란 고양이

수많은 ‘길냥이’ 사이에서 독보적인 ‘아이돌’이 되고 있는 나비가 우리학교에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2012년 겨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추운 겨울 오갈 때 없던 나비는 체육부 기숙사 조태호 사감의 배려로, 체육부 기숙사 앞 공터에 자리 잡게 됐다. 공터를 ‘자신의 집’으로 삼은 나비는 애완동물과 다르게 체육부 기숙사 주변 전체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제2 기숙사에 자주 나타나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다. 이런 나비는 보금

자리 근처에 다른 ‘수컷’ 고양이 없었음에도, 출산을 네 번이나 했을 정도로 사랑을 찾아다니는 ‘로맨티스트’다. 그러면 서로 ‘수컷’을 자신의 보금자리에는 결코 데려오지 않는 ‘단호박’ 녀이기도 하다. 자신의 핏줄인 새끼 고양이도 오래 돌보지 않는 ‘나쁜 여자’이기도 하다.

기숙사 ‘안’ 까지 노리는 나비, ‘위생·털 알레르기 우려’

‘나쁜 여자의 도도함’은 특히 먹이를 가리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참치캔이나 소시지를 건네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면 입도 대지 않는다. 물론 배고픔에 도도함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맛만 볼뿐 결코 다 먹지는 않는다.

결국 말라가는 나비를 보며 몇몇 사람들은 걱정하는 마음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단호한 성격 탓에 간간한 입맛을 고칠 줄 모른다.

▶3면으로 이어짐



정상인이나 불구자나 : 장 자끄 루소, 《에밀》

휴머니티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④

김인석 휴머니티스 칼리지 교수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혁명 기간 동안 장 자끄 루소(1712-1778)의 《에밀》(1762)에 빠져들었다. 《에밀》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다.

《에밀》은 ‘에밀’이라는 허구의 남자 주인공이 이상적인 교육자를 통하여 이상적 인간으로서 성장되는 과정을 표현한, 소설형식의 교육사상론이자 인간론이며 문명비평론이다. 《에밀》의 어떤 면이 휴

인력을 발휘하였는가?

루소는 38세에 다종 아카데미 현상공모에 논문 〈학문과 예술론〉(1750)이 당선되었다. 그는 수상



‘에밀’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본 교육사상론·인간론·문명비평론이다

소식을 듣는 순간 새로운 정신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다. 루소는 사회적 영달을 누리려는 희망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지위와 사교계의 화려한 생활로부터 떠나는 ‘외적 개혁’ 및 도덕적 정신세계로의 전환인 ‘사상개혁’을 단행한다. 그 결과 《에밀》이 탄생했다. 루소는 선과 악이라는 서로 극단으로 대립되는 가치 잣대들을 만물에 들이대고서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 및 문명 전체를 단죄한다. 그는 이기심으로 주도된 사회제도를 통하여 형성된 인간자아를

정신적 ‘불구’라고 규정한다. 그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자연인이며 교육의 모토는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하기’이다. 루소의 ‘자연인’ 교육론은 루소 당시까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킨 사상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의 하나였다. 《에밀》이 발표되자 루소는 고발되고 그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다. 루소는 박해와 불행의 폭풍에 휘말리어 8년 동안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죽는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다음 제1577호는 10월 13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연재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황철수(지리학) 단장의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 6면



시선

사설

‘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회는 필요없다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대학원 발전위원회와 미래 위원회가 출범했다. 두 위원회는 ‘대학원 구조혁신’과 ‘미래대학과 그 건설을 위한 성금모금’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술역량과 그 바탕이 되는 철학, 재정을 위한 활동인 만큼 그 무게가 적지 않으며 기대도 크다. 그러나 구성원의 기대가 큰 만큼 이들 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미 우리학교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한다. 당장 규정을 검색해보면, 67개의 위원회 관련 규정이 나온다. 비록 이중에는 해체된 위원회와 사실상 사문화된 위원회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다. 연세대는 규정 검색 시 33개 위원회, 한양대는 28개 위원회가 존재하며 성균관대의 경우 19개의 위원회뿐이다. 전체 구성원의 규모가 큰 만큼, 위원회의 ‘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다방면에 걸쳐 연로를 확보하려는 자세는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수’만 많고 정작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 ‘긍정적인 의미’는 퇴색한다. 특히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목표대치’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목표전치’와 같이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무능한 위원회가 우리학교에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결 방안으로 관련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간단하다. 위원회의 종결과 신설 매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위원회 역시, 향후 활동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논의와 기획의 발판이 되거나 혹은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 핵심은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적절한 시간 내에 그려야 하고, 미래위원회는 미래위원회 사무국에서 그려온 계획을 구현해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경쟁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많은 1인당 장학금에 비해 왜 학부 학생들이 모교대학원보다 타대학원에 진학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미래위원회는 ‘미래대학’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될 재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두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과 더불어, 기존의 위원회를 파악, 정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에 설치된 위원회가 543개, 광역단체에 1,930개, 기초단체에 1만 6,841개가 운영 중이다. 역대 최다라는 위원회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각 부서의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련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간단하다. 위원회의 종결과 신설의 매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위원회 개폐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개최실적이 저조하면 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학을 방지하길 당부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김상도 선수 ‘은’ 획득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9. 22 ~ 2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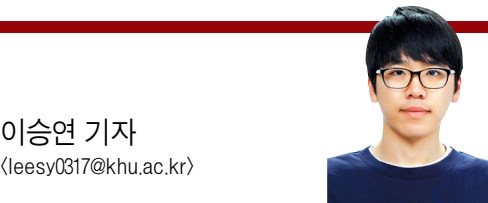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우정원, 복사·제본 하는 곳 배짱 영업하네요.’(2014.9.23)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지금까지 3천원에 우정원 복사가게에서 스프링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4천원을 요구해 항의를 했더니 책이 두꺼워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 여학생이 제본을 요구하자 전공책을 그렇게 제본하면 책이 상한다며 거절하는 모습을 봤다며,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생리공결제도 논쟁

차별 아닌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Q1. 남학생과 여학생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수업에 빠졌다. 누가 손해를 봤는가?
둘 다 손해다. 비싼 등록금 내고 수업에 빠진다면 손해가 학생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

Q2. Q1의 상황에서 여학생은 생리공결제도를 악용해서 출석을 인정받았다. 누구의 손해인가?
역시 둘 다 손해다. 이유는 다르지 않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자신의 수업권을 버렸기 때문이다.

Q3. 두 번째 문제의 상황에서 남학생은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무엇이 원인인가?
생리공결제라는 ‘차별적 제도’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생리공결제가 없더라도, 그는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문제는 출석하지 않은데 있다.

다름과 틀림만큼이나 차이와 차별, 그리고 구별을 혼동하는 일이 잦다. 지난 22일 1인시위의 논리에도 차이와 차별은 구별 없이 혼재돼있었다.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는 총여학생회(총여)와 생리공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총여를 향해선 교내에 여학생을 차별하는 제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생리공결제에 대해선 자연적인 현상을 보상해주면 끝이 없고, 제도를

를 악용하는 사례가 극에 달했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생리공결제를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아프다면, 병가를 내라”고 말했다. 생리공결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생리통이다. 생리통도 치료의 대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리공결제는 보상이 아니라 병가다.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도, 제도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남학생은 생리를 하지 않고, 여학생은 (대체로) 생리를 한다. 이는 둘 사이의 차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여학생에게 별도의 제도가 생기는 것은 ‘남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다. 차별은 더욱 아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제도적 불완전성도 개선해나가야 한다. 다만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폐지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살아남는 제도가 몇 개나 될지 의문이다.

더 이상 성을 섹스 즉 생물학적 성만으로 분류해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 성인 젠더와 다양한 성적 판단을 총칭하는 섹슈얼리티가 이야기되는 때다. 이런 시대가 오기까지 수많은 투쟁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일정정도 ‘성과’를 얻은 셈이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성에 대한 논의는 이 성과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구도로만 묶어 ‘군대!’를 외치면 “출산!”으로 답하는 비생산적인 논의는 더이상 무의미하다.

특별한 고마움 아닌
당연한 행복되길

세시봉

정용재 기자
(jyae91@khu.ac.kr)



‘Class가 다른, High Khulass’라는 가을 대동제 이름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2가지였다. 하나는 ‘KHU를 이용한 제복짓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한계는 어디인가’였고 또 다른 하나는 격이 다르다는 이 축제가 별로 ‘특별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설문과 활동, 이벤트는 참신했지만 결국 주점과 연예인이라는 두 키워드는 그대로 엮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청소노동자가 축제기간 지켜주길 부탁한 5가지, 쓰레기 모아놓기와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 화장실 사용주의, 담배와 가래침은 흡연 공간에서만 할 것 등을 토대로 새벽 6시 주점 정리 상태를 점검했다. 동의마당과 노천극장, 청운관과 마로니에길 그리고 임감교실까지 둘러보면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은 물론, 분리수거까지 돼있는 정리 상태에 놀랐다. 당장 올해 봄이 생각났다. ‘벚꽃의 두 얼굴’이란 사진이었나. 벚꽃을 즐기는 학생과 흩어진 쓰레기에 고생하던 청소노동자가 있던 학교는 달라져있었다.

대동제는 끝났다. 하지만 특별해서 고마웠던 우리의 행동이 당연한 일이 되길 기대한다

직접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 “화장실을 별 탈 없이 사용해줘서 고맙다”, “쓰레기 모아 놓아주기만 해도 일이 반으로 준다”, “예년보다 훨씬 좋아졌다”와 같은 말이 이어졌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일부 화장실에는 구도로 지저분했고, 화단에 쓰레기를 버려놓거나 청소도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는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다. 청소노동자는 “솔직히 이정도만 해줘도 고맙지”라는 반응이었다.

이번 대동제 중 고맙다는 말을 전한 것은 청소노동자만이 아니었다. 지난 25일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서도 눈물과 슬픔보다 응원과 감사함을 전하는 소리가 더 컸다. 축제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100여 명이 강의실을 찾았고, 유가족의 건강을 걱정했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우리 세대가 바뀌나가겠다는 응원에 유가족들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서로 감사했고, 대동제가 ‘진짜’ 격이 다를 수 있을 만큼 행복을 나눴다. 대동제(大同祭)는 다함께 크게 어울려 화합한다는 뜻이다. 크게 어울리고 화합해야할 대상은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다. 이제 대동제는 끝났지만,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격이 다른’ 삶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의 일상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번 대동제 기간 동안 특별해서 고마웠던 우리의 행동이 당연한 일이 되길 기대한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1면에서 이어짐

중앙대자보판 앞은 동의마당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모아놔지만 묶어놓지는 않아서 바람에 많이 흩어져있었다.

가장 아쉬웠던 구역은 청운관 주변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이유겠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쓰레기 정리가 아쉬웠다. 특히 청운관 정문(좌측 문)보다 우측 문 앞 쓰레기통 주변이 뒷정리가 부족했다. 화장실 역시 구토나 음식물 쓰레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침운동을 나온 인근 주민은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반대로 가장 잘 정리가 돼있었던 곳은 임간교실과 온실 사이의 주차장 구역이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뤄졌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봉지에 담아뒀다. 깨진 술병을 바가지 등에 분리해 정리해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설문조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깨진 술병을 그대로 봉지에 담아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를 잘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한 아동가족학과 ‘Present’ 학생회는 “다른 주점보다 빠르게 오전 1시에 주점운영을 마쳤다”며 “이후에 남은 사람들까지 함께, 1시간 30분 정도 주변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주점 운영단체 모두 뒷정리 ‘열심’ 안전수칙·이용자 서명 효과 거둬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주점을 운영한 단체 모두 뒷정리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점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주점을 위한 3가지 약속’에 서명 받는 등의 활동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 26 일에는 뒷정리와 분리수거가 전날보다 더 우수했다. 전날 가장 아쉬운 구역으로

〈청소노동자가 전하는 평상시 당부사항〉

1. 책상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2. 책상 위나 서랍에 쓰레기 넣지 말아주세요!
3. 화장실 이용시 이물질로 변기, 세면대를 막지 말아주세요!
4. 쓰레기통에 컵라면, 캔 등을 버릴 때는 ‘물’ 없이 버려주세요!

곱혔던 청운관 앞 역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분리수거까지 철저하게 진행했다. 뒷정리상태를 점검하며 마주치는 청소노동자 대부분 “정말 잘 정리해둔다”며 배려해주는 학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열심히 정리를 하려다가 오히려 이를 어렵게 만드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영대 로비에 분리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모아둔것이다. 전날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아예 실내로 옮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번거로워졌다. 경영대 C 청소노동자는 “봉투 한 번 들어봐. 병으로 꽉 차서 꿈쩍도 안해. 이걸 왜 안으로 옮겨와서…”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3시,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회원들이 참석한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장’을 찾았다. 이들간의 뒷정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물었다. 이런저런 아쉬운 점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화장실 청소용 수세미나 바가지가 없어졌는데, 그것으로 ‘식기’를 닦았다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그래서 미리 숨겨둬야 돼”, “아예 못 찾게해서 못쓰게 해야지”라는 말이 이어졌다.

이런 저런 불만을 이야기하던 청소노동자들은 “이전 축제보다는 깨끗했나”라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럼!”, “쓰레기만 잘 모아둬도 도움이 되지”라고 말

했다. 질문을 마치고 떠나려는 순간에도, “아쉬운 점만 말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정말 감사해”라고 말을 건넸다.

대동제가 끝나고 다음날, 27일은 폐막식에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인지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분리수거를 했지만, 각 개인이 버린 작은 쓰레기들이 곳곳에 흩어져있었다.

청소노동자, “정말 감사해” 뒷정리 문화 앞으로도 이어지길

특히 이날 성악, 무용 등의 실기우수자 전형 수시시험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만큼 청소노동자의 움직임은 오전 6시부터 분주했다. 유종의 미가 아쉬웠다.

‘격이 다른 축제’를 외친 이번 서울캠 퍼스 가을 대동제는 끝났지만 오늘도 청소노동자의 노동은 이어진다. 청소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단연 강의실 쓰레기 문제다. 쓰레기를 책상 위나, 책상서랍에 넣지만 알아도 건물마다 청소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한다. 오전 7시 출근임에도, 매일 30분 일찍 나왔던 청소노동자에게 ‘정시출근’의 요건인 셈이다. 높아진 대동제 뒷정리의 격이 강의실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1면에서 이어짐

수많은 학생의 사랑을 받는 나비. 요즘 나비는 부쩍 오른 인기에 힘입어 활동 무대를 기숙사 내부까지 넓히려고 시도 중이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면 ‘안티’가 생기는 법일까. 이런 나비의 기숙사 안 출입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체육부 기숙사 사무실 A 직원은 “자고 있는 방에 불쑥 들어와 선수들이 놀라기도 한다”고 전했다. 제2기숙사 여학생동 경비원은 “나비가 건물 안까지 들어오려고 해서 막고 있

다”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위생문제나 털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비가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만큼, 언제까지 ‘아이돌’로 사랑받을지는 불분명하다. 그 성격을 생각해보면 사랑을 찾아서, 혹은 고급 소시지가 질려서 도도하게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야기. 나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오늘도 제 2기숙사 앞에 누워있다. 여유롭게 햇빛을 즐기며.

‘대학 ‘간판’ 만 남기는 대학평가 거부’

총학, 대학평가 거부선언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우리학교 총학생회(총학)을 비롯한 동국대, 성공회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총학도 “언론사 대학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중앙일보사 앞에서 ‘언론사 대학평가, 함께 거부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발표한 4개 대학 총학은 대학이 특성과 현황에 따라 고유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높은 점수를 쳐주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위 ‘SKY’라 불리는 한국사회의 학벌카드를 깨뜨리는 데에 언론사 대학평가가 기여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진행되면서, 학벌카드를 공고해졌고, 대학의 특성화된 전공 대신 간판만 남았다”며 “‘대학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나선 고려대 총

학의 선언을 지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 발표 이전인 지난 22일 고려대 총학이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운동을 시작한 뒤로, 서울대와 연세대의 총학도 동참의사를 밝힌 바 있어 대학평가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에서, ‘전체 언론사’, ‘정부의 대학평가’까지 평가 거부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총학 박이량(사학 2008) 회장은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나 학문 가치와 모순되는 대학평가를 거부한다”며 “중앙일보 대학평가뿐만 아니라 대학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다. 대학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9일부터 각 대학에서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 대학생 릴레이션언’을 통해 대학평가에 대한 학생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며, 다음달 11일 한양대에서 ‘누구를 위하여 대학은 줄 서는가’ 교육포럼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학생회(왼쪽부터)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 일 시 : 2014. 10. 1(수) 19:00
- 장 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301호
- 주요내용
 - 201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안내
 - 2014학년도 입시결과 설명
 - 질의응답

- 문 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9,
lawschool@khu.ac.kr,
http://www.khls.ac.kr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lf Design 프로그램 모집 공고

스스로 필요한 활동을 디자인하고 활동비를 지원 받자~!!!

입학처에서 개인별 맞춤형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개발을 최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Self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 지원자격 : 본교 국제캠퍼스 소속 재학생
※ 신입생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휴학생 제외
 - ▶ 지원내용
1. 활동 기간 : 2014학년도 1~2학기 동안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프로그램
2. 활동 내용 : 개인이 인성발달, 자기계발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 예) 재능기부봉사, 지역사회와 연관된 활동, 각종 프로젝트, 자격증 준비, 문화체험 등
※ 단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취득을 위한 활동은 지양함(수강료, 시험용시료 등).
 -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총 25여명 지원 예정)
※ 결과보고서 제출(2015.01.19~25)한 자에 한하며, 활동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함.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khwaao@khu.ac.kr)
※ 본교 입학정보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신청기간 : 2014. 09. 29(월) ~ 10. 10(금)
 - ▶ 문의사항 : 국제캠퍼스 입학처(031-201-3300, 정윤미)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입학정보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캠퍼스 입학관리처

매그놀리아 인증제

2014~2학기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대상 설명회
일자 : 2014.9.30(화) 시간 : 15:30~17:00
장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비교과과정 활동, 즉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학생활동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개인역량을 수치화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제도

인증 요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3개 영역으로 구분된 비교과 과정에 대해 영역별 최소 인증점수(500점)를 달성하고 total 2,000점 이상 달성 시 인증!

특전

- 지속적인 개인역량 관리
- 매그놀리아 인증제 인증서 발급
-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활동 지원비 지급
- 인정내역확인서 발급

영역별 애당 비교과 프로그램(학점인정 프로그램 제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지식 및 정인적 측면 교양, 지식, 정보역량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어 능력, 문화인 의사소통 능력	창조적 사회인, 취업역량 통사, 윤리, 사회연계
• K-CESA, TOCT • 생활, 역사, 외국인 등 취업 및 상담 • 단과대학 지도교수 상담 • 진사회, 발표회, 공모전 참여 • 문화제, 축제, 학술제 참여 • 독창 및 프로그램 참여 • 교내·외 활동 및 인턴	• 어학 성적 • 생활, 역사, 외국인 등 취업 및 상담 • 외국어 토크, 발표회, 독창 • 스포츠, 동아리, 라스마이 • 학문 한자 • 해외 봉사 • 학과 및 프로그램 참여 • 해외 활동 및 인턴	• 취업관련 상담 (ex.취진처 1차 상담) • 국제교내·외 봉사 • 어학 외 자격증 • 경진대회 수상 • 논문게재 • 독창 및 프로그램 참여 • 교내·외 활동 및 인턴

매그놀리아 인증제 담당부서 안내

취업진로지원처

- 홈페이지 : http://job1.khu.ac.kr(서울), http://career.khu.ac.kr(국제)
- 전화문의 : 02)961-0167~8(서울), 031)201-3066~9(국제)
- 방문문의 : 청운관 1층(서울), 학생회관 1층(국제)
- 메일문의 : magace@khu.ac.kr
- 상담예약 : 종합정보시스템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원전, 하청 노동자의 고통으로 유지”

원전 탐사보도 히구치 켄지 강연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서울】 ‘포스트 후쿠시마, 사진으로 보는 핵발전 노동자의 삶’ 특별강연회가 지난 24일 청운관에서 열렸다. 약 150여 명의 원자력발전소(원전) 피폭노동자를 사진으로 담은 사진작가 히구치 켄지가 강단에 올랐다.

1960년대부터 공해 산업재해, 환경오염, 원자력발전소 피폭노동 등의 문제를 탐사보도해온 히구치 켄지는, 그동안 자신이 찍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능 피폭의 심각성을 설명해나갔다. 특히 가장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됐던 하청노동자의 고통과 인권유린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원전은 말단노동자들이 없으면 하루도 가동하지 못한다”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임금의 불법착취까지 이어졌다. 약자인 노동자는 병에 걸리면 별레처럼 버려진다”고 말했다.

원전 노동자의 고통은 자본 앞에서 외면받았다. 당시 원전1기(100만KW)를 만들면 약 5조에서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움직였다.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자와 언론까지 1970년대 들어 원전을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선전이 나오는 순간에도 하청노동자는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히구치 켄지는 지난 40년간 피폭 노동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했지만 외면당했다. 돈에 붓고됐던 저널리즘 정신은 ‘사고’가 난 다음에야 움직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붕괴한 지난 2011년 3월 11일 이후에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언론과 외신 약 70개사가 히구치 켄지에게 취재를 요청했고 TV, 신문, 잡지 등에서 특별취재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끝으로 히구치 켄지는 “인간과 원전은 공생할 수 없다. 하루 빨리 진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히구치 켄지와 진행한 일문일답.

Q. 한국에서도 원전문제는 다뤄진다. 하지만 잠시 이슈가 되고 이내 잊혀진다. 여전히 고리원전과 같은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다.

우선 노동자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 역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노동자들이 원전 문제를 인식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



지난 24일 청운관에서 원전 피폭노동자를 취재한 사진작가 히구치 켄지의 강연이 열렸다

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원전의 위험성과 변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Q.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 원전이 다른 발전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전이 배출하는 방사능 폐기물과 노동자 피폭문제 등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고, 인류가 방사능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원전을 찬성하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원폭이 투하되기도 했지만,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2만 5,000명 정도가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했다. 원자력은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데 특히 사람을 죽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 무서운 물질을 인간이 다루서는 안 된다. 인간과 원자력은 공존하기 어렵다.

Q. 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다. 원전과 관련한 활동을 ‘대학’ 혹은 ‘대학생’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구를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원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항공료도 안 비싸니까 알아해서 갔다 와보면 좋겠다.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없지만, 황야처럼 변한 현장을 보면 원자력의 무서움을 목격할 수 있다.

청운관 에너지자립건물 만들기
그린캠퍼스로 가는 거점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 논길

이재은 기자

서울캠퍼스의 2013년 한 달 평균 전력 요금은 약 2억 4,400만 원이다. 이는 2012년보다 약 300만 원, 2011년보다 2,400만 원정도 많아진 금액이다. 오히려 전력사용량은 감소 추세다. 2013년의 전력사용량은 전년 대비 1,000만kWh가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에 예비전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용을 규제한 이후 1년 동안 전력가격이 2번 인상된 탓이다. 결국 전력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의 활동은 눈에 띈다. 낮설 수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는 지난 1학기부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주관한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사업 및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사업’에서 49개 단체 중 하나로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선정됐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제안한 ‘그린캠퍼스 캠페인’과 에너지 협동조합 만들기 사업은 선정과 함께 지원받은 2,500만 원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강대, 숙명여대, 한양대의 사업이 사업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에 맞춰져있는 것과 달리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 김진해 위원은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캠페인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배경을 밝혔다.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는 지난 4월부터 천연화장품 만들기과 교육, 특강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청운관에 자전거 발전기와 햇빛을 모으는 태양광 조리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은 주변 환경과 자연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청운관 1층과 2층 복도의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했다. LED전등의 경우 형광등보다 설치 단가는 비싸지만, 더 밝고 에너지 효율 역시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의 활동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심’이 문제였다.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낯선 만큼, 사람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현재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을 출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다. 추진위는 ‘청운관을 에너지 자립 건물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에너지 문제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덩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 김 위원은 “목표가 불분명할 수는 없었다”며 “우리학교 전체를 그린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청운관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물론 청운관을 에너지 자립건물로 만드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우선 건물전체가 하루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을 점검하고, 이를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해봐야 한다. 복도에만 부분적으로 설치한 LED등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절전사업도 고민이다. 하지만 첫 목표를 정한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는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은 “대학은 기존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며 “아무 고민없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1~2014 서울캠퍼스 에너지 사용추이》

	2011	2012	2013	2014. 8
전력요금	26억 4,700만 원	29억 100만 원	29억 3,600만 원	14억 3,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22억 4,000만 원	20억 900만 원	6억 6,700만 원
수도요금		5억 4,200만 원	6억 500만 원	3억 3,200만 원

“가을로 가는 음악산책”, 함께 걸을까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오는 9월 30일(화) 낮 12시30분 도서관 앞마당에서 제45회 작음악회 “가을로 가는 음악산책”을 개최합니다. 본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편안한 음악산책을 위해 귀에 익은 행진곡, 영화주제곡, 드라마 삽입곡, 한국민요변주곡 등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민요변주곡(Variations on a Korean folk song)은 한국의 ‘아리랑’이 외국인에 의해서 편곡된 곡으로 우리 것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음음악회와 더불어 따뜻한 차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나던 길음 잠시 멈추고 깊어지는 계절 속으로 음악산책 떠나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안내 *

- 행사명 : 중앙도서관 제45회 작음음악회 “가을로 가는 음악산책”
- 일시 : 2014. 9. 30 (화) 낮 12시 30분
- 장소 : 중앙도서관 앞마당
- 출연 : ·지휘 : 송호섭 교수(음악대학)
·연주 : 음악대학 관현악과
- 프로그램(곡명/작곡가)
 - Fanfare for the common Man(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 / Aaron Copland
 - Selections from the Sound of music(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 Richard Rodgers
 - Variations on a Korean folk song(한국민요변주곡) / John Barnes Chance
 - Bugler’s Holiday(나팔수의 휴일) / Leroy Anderson
 - On the mall March(행진곡) / Edwin Franko Goldman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만남)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아워홀 채용설명회	경영지원, 구매, 영업, 연구개발 등	9.29(월) 14:00~16:00	청운관 B117호
매그놀리아 인종제 학생대상 설명회	매그놀리아 인종제	9.30(화) 15:3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SPC그룹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10.1(수) 15:00~17:00	청운관 B117호
삼성생명 SFP 채용설명회	SFP	10.1(수)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삼성생명 SFP 채용설명회	SFP	10.1(수) 16: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입학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10.1(수) 19:00~	법학관 301호
세아상역 채용설명회	영업지원, 경영지원	10.2(목) 10:00~15:00	청운관 1층 상담실
세아상역 채용설명회	영업지원, 경영지원	10.2(목)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컨설팅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금 (각 컨설팅팀별 일일 상이함)	오바스를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팀별 일일,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상담	이중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 공중권, 대7기 상담	월 18:30~19:30	내오관 103호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세 내용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4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 보충훈련 안내

2014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보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시간임수참석바랍니다.

- 일 자 : 2014. 10. 7(화)
- 교육대상 : 경희대학교 대학직장 예비군 중 향방기본 보충훈련 대상자
- 이동방법가. 단체이동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 07시50분 출발나. 개별이동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2)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3) 개인차량 : 경기도 남양주시 이매동 284-1번지 or 금곡호련정/충일아파트 검색다. 전화번호1) 221 연대 : 031-595-8337(교학) 연대동원과 또는 3대대동원과2) 연대동원과 : 031-595-79233)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4. 유의사항가. 지역에서 1차 보충 이상 훈련을 무단불참 후 복학시 무단불참 시간 부과※훈련시간 분석 후 훈련유형(향방직계, 동미참 등)에 따라 별도 계획에 의거 부과나. 간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교육이 보류(면제)되나이월훈련은 연차와 무관하게 부과다. 훈련 명부 및 부과시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연대본부로 문의할 것라.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마.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요대, 바늘, 고무장갑)불량자 결석처리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미소지자 결석처리사. 지각자 귀가조치(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아.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시 본인이 전국단위훈련 신청자. 결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카. 2014년1월 1일부터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예정자)는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동원) 또는 지역 일반훈련 대상타.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훈련비(중식비 6천원, 교통비5천원)사용5. 기타가. 기타 사항은 예비군연대본부(청운관 학생생활지원존, ☎961-0148~9)로 문의나. E-mail 및 전화/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예비군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homepage/Home.jsp

서울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

교수의회 서울지회 ‘독립’ 의결, 3개 지회 사이 ‘갈등’ 원인 이 의장 “전체교수 의견 반영할 것” … 동 의장 “대의원 임의탈퇴일 뿐”

〈이성근〉

〈동석호〉

표류하는 교수의회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교수의회 서울지회가 지난 22일 긴급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로 독립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비대위 명의로 전체 교수가 회합했던 총장선출방식(안)을 서울캠 전체 교수가 다시 회합

한 후 서울지회 명의로 법인에 제안하기로 했다. 서울지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서울캠 전체 교수에게 지난 24일 발송했으며, 논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이견을 지난 26일까지 수렴했다. 최종적인 의견수렴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지회 이성근(관광학) 의장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수 숫자가 서울지회만 해도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각

지회별로 입장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회도 양 캠퍼스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서로 협력할 사안은 함께 하는 것처럼 운영해 가자는 것이다. 다만 서울캠 전체 교수의 의견을 물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결내용에 이견이 없을 경우, 서울지회는 오는 10월 중 새 회칙과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11월 중 신임 의장과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의장과 임원이 선출되

는 대로 ‘현 집행부는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회 긴급대의원회에서 ‘독립’을 의결한 것은 지난 19일 국제 · 서울 · 의학지회 의장 3인이 모인 의장단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 ▲기존 비대위 해체 후 교수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비대위 위원장 교체 ▲의장단 공동 사퇴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의 안이 제안됐지만 끝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동석호 의장은 “교수사회가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교수의회에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임의탈퇴’하면 어떻게 하나. 특히 선출직이라면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 의장은 “교수의회 가입과 탈퇴는 각 개인의 권리”라며 “서울지회 대의

원들의 임의탈퇴일 뿐, 서울캠 전체 교수의 탈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수의회는 29일, 지난 15일 휴정됐던 제3차 전체대의원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제3차 전체대의원회 안건이었던 ▲기존 비대위 해체 후, 교수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비대위 운영하자는 안 ▲대의원간 폭언 · 협박 문제에 대한 징계 ▲총장선출제(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 “대학원 구조 혁신하겠다”

권오은 기자

대학원 발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통합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는 ▲연구중심대학원 ▲학제간 융 · 복합 ▲학비지원 및 재원마련 방안 ▲진학률과 관련된 학부-대학원 간 간극 축소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대학원이 직면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단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기술 중심학문’으로 인한 인간소외다. 따라서 삶의 가치나 목적과 같은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인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그것이다. 대학 입학자가 줄어드는 것은, 향후 대학원 입학 규모도 축소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013년 63만 1,835명이었던 대학 학부입학 수료가 2018년 54만 9,890명으로 감소되어 대입정원 55만 9,036명에 약 1만 명 정도 미달하게 될 것이고, 그 5년 뒤인 2023년에는 약 16만 명 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대로 대학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학생총원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우리학교 대학원 재학생 수는 3,650명으로 연세대 7,358명, 고려대 5,696명 등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와중에 올해 우리학교의 대학원 진학률은 10.8%로, 예년과 같은 10% 내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대학원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 운영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년 쯤 된다”며 “하지만 학부의 대학원 진학률은 제자리 수준이고, 학 · 석사 연계과정이나 석 · 박사 통합과정 모두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를 통해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크게 통합위원회와 인문 · 사회과학, 이 · 공학, 의 · 간호학, 예술 · 체육학 등 4개의 계열위원회로 구분되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통합위원회에서 회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대학원 발전방향’을 수립

〈2013~2014년 대학원 정량지표 비교〉

기준 년도	항목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2013	재적생수(명)	3,650	7,358	5,696	4,509	4,252
2013	중도탈락율(%)	5.7	7.4	5.2	6.1	4.8
2013	외국인유학생 현황(명)	787	546	392	470	436
2013	재학생 1인당 장학금(원)	5,238.4	4,743.7	5,320.0	6,014.6	3,727.7
2014	평균등록금(원)	5,775.5	6,224.9	6,020.9	6,026.7	5,674.0
2014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78.8	85.2	88.1	66.6	70.6
2014	학위취득자수 (석사/박사, 명)	643/193	732/367	707/308	679/194	659/228
2014	졸업생취업률(%)	62.3	72.0	67.9	71.6	66.4

하고 내년부터 계열별위원회 회의를 함께 운영해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국내 · 외 대학원의 운영체계를 분석하는 연구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대학원과 연구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이제 첫 걸음을 뒀다. 그 성과는 약 1년 6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다. 송 원장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거요적 소통체계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경이로운 경희’를 위한 출발

경희미래위원회 출범

이진우 기자 urusa93@hanmail.net

지난 26일 ‘경희 미래위원회(미래위)’의 출범식이 열렸다. 미래위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참여한 특별위원회이며, 조인원 총장과 SKC 최신원 회장, 김성호 동문회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출범식 이후 위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자문, 성금캠페인 선도, 리더십 구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미래위는 학술과 평화를 통한 공적실현영역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Global Trust’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미래위는 ‘지구공동사회’를 지향하는 미래대학 건설을 위해 ▲교육의 수월성을 통해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경희 ▲학술의 탁월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경희 ▲질병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경희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경희를 구현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 △연

구 △진료 △실천 △인프라 5개의 분야로 나눠 성금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1부 출범식, 2부 ‘경희 65주년, 미래의 회상’을 주제로 한 경희한마당 잔치로, 각각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1부 미래위 출범식에서는 미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경희가 나아가야할 길과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희미래위원회 이태원 사무총장은 “기존에 경희가 추구하던 ‘인문학적 교양 교육의 강화’와 ‘학술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작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부 행사는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제 33회 피스바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대학 만들기”를 주제로 한 가을 대동제의 폐막식이 진행됐다. 축사를 통해 조인원 총장은 “경희라는 구성공동체에 큰 꿈, 희망, 성취에 대한 기원을 담아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축제기간임에도 100명 몰려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 이에요.” ‘2학년 4반 수현이 엄마’의 한 마디에 지난 25일 호텔관광대학 별관 202호에는 정적이 흘렀다. 중간 중간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경희인 모임, 경희대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총학생회가 주최했다. 4명의 유가족이 찾아왔다. 축제기간이지만, 학생 100여 명이 모일만큼 관심은 뜨거웠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한 영상을 시청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현장상황은 물론, 유가족과 많은 시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 프로젝트에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

다.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잊혀졌던 진도 앞 바다의 기억은, 영상이 상영되는 20분 동안 다시 살아났다.

이후 ‘2학년 4반 수현이 엄마’가 마이크를 들고 담담하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살릴 계획도 의지도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안일하고 성의 없는 대응에 분통이 터지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구조에 임했다면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담담하게 이어지던 문장이 끝나자, 정적은 더 깊어졌다.

유가족들은 ‘사고’만큼이나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학년 4반 승목이 아빠’는 “정부에서는 자주 변명만 늘어놓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고 방 송했다. 이제는 정부도 언론도 믿



학생들의 응원이 끝날 때마다 유가족들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만큼 아픔도 컸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힘에 부쳐 털썩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유가족의 이야기가 끝나고 ‘질

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질문보다는 응원이 이어졌다. “건강이 중요하다. 잘 챙기시길 바란다.”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언론의 모습에 죄송스럽다.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 세대가 바꾸겠다.” 응원이 끝날 때마다 유가족들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100분이 넘게 이어졌다. 그 시간이 남긴 것은 무엇 일까. 또 남은 누가해야 하는가.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대외협력처

서울 02-963-4874~6 하나은행 278-810023-98605 khsa0028@khu.ac.kr
국제 031-201-3190~1 하나은행 428-141962-19304 future.khu.ac.kr

칼럼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황철수
지리학과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와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신문은 첫 번째 순서로 황철수(지리학) 교수에게 ‘시공간 빅 데이터’에 대해 들어봤다.

연재순서

1회 :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2회 : 시공간 융합트랙 교과과정

3회 : 학부생 진로개발

‘세상’을 이해하기, 축적된 시·공간 데이터에서 출발

최근 높아지는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비단 한 학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학문 분야를 휩쓰는 대풍과도 같아 보인다.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빅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저장·관리·분석기법의 한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빅 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크기가 매우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순환 속도가 빨라 기존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정형 혹은 비정형 디지털 데이터를 일컫는다. 이런 빅 데이터의 특성을 흔히 4V(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로 규정하고 「빅 데이터 생성→수집→저장→분석→표현」의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세부 영역과 관련기술이 존재한다. 따라서 흔히 빅 데이터를 말할 때는 빅 데이터의 출현, 생산과 소비, 활용 등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테크놀로지 역시 함께 빅 데이터 영역에 포함시킨다.

빅 데이터 시대의 출현과 학문적 대응

빅 데이터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즉 서양에서 르네상스와 근대 이후 인류 문명에 획을 긋는 자료 집성(集成)의 역사가 존재하고, 동양에서도 청나라의 고증학, 영·정조 시대 규장각으로 대표되는 학문과 문화 르네상스에서 그 전조를 찾을 수 있다.

21세기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는 획기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SNS의 활성화, 사물네트워크의 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공적 혹은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과거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의 홍수에 인류의 삶이 놓여지게 되었다.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역시 빅 데이터의 유용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데이터의 생산 체계는 주로 정형화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표준적 자료를 공적 기관이나 민간 조직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발견되는 데이터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와 답변, SNS, 블로그, 게시판,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데이터의 형식과 크기를 특정할 수 없는 비정형 혹은 비구조적 데이터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인류의 삶이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메타 기술과 메타지식 역시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를 다루는 기술, 이른바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이뤄낸 최근 10여 년간 발전은 정보 자체 및 정보를 다루는 지식 체계의 변화를 일으켰다. ‘기술적 정보’ 혹은 ‘메타기술’이 미래 사회를 변혁하고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방법에 대한 지식(knowledge-how)’이나 ‘대상에 대한 지식(knowledge-what)’이 아닌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지식, 즉 ‘지식에 대한 지식

(knowledge-where)’ 체계가 중요한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시공간 빅 데이터란 무엇인가?

최근 생산되는 빅 데이터를 뜯어보면 시간과 공간 위치 태그라는 속성이 동시에 기록돼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위한 공간 데이터 형태 정의, 공간 연산자, 공간 인덱스 등을 포함하는 기술과 함께 새로운 분석 방법 등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빅 데이터의 출현과 관련 연구는 ‘공간’, ‘시간’,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융합적인 연구의 도입과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시공간 빅 데이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정형, 비정형 자료를 융합한 데이터로 시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해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적 체계”를 시공간 빅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전세계 빅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빅 데이터의 시공간적 속성을 간과하고 일찍부터 빅 데이터의 컨테이너로써 ‘디지털 지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모든 정보와 연계시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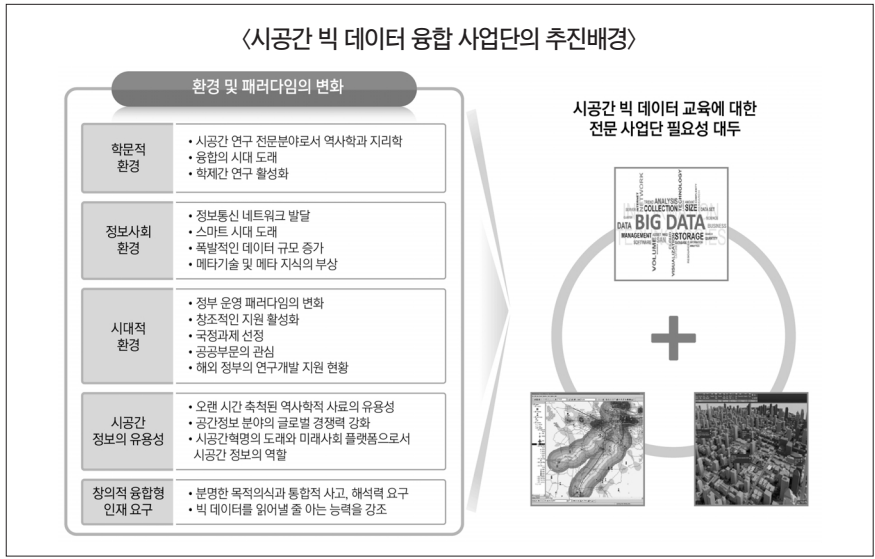
는 초국적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과 사학의 연계 필연성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흘러가며 그 변화 속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발생한다.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를 다루는 역사와 지리는 학사(學史)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18세기 철학자 칸트는 “지리학과 역사학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하나는 공간에 의한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의한 고찰일 뿐”이라 하였고, 19세기 철학자 헤겔은 “역사가 정신의 시간적 발전이라면, 자연은 이념의 공간적 발전”이라고 했다. 20세기 사회 전반적으로 계량화되고 파편화됨으로써 학문 세계에서도 세분화, 전문화의 길이 강조돼 역사와 지리는 독자적인 분야에 갇히게 됐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시·공간에서 늘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21세기 들어 다시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여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됐다.

빅 데이터를 둘러싼 지리학과 역사학의 접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담긴 정보를 기반으로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에 따른 다른 공간 이용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로부터 개인이 사회와 갖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추론하며, 인간 삶의 질(Quality of Life) 문제를 제기한다. 이로써 기존의 귀납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론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시간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 축의 범위가 하루 내지 한 달 등 현재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으로부터 공간적 유사성과 특이성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시·공간 빅 데이터 연구는 선사 이래로 역사적 시간 흐름의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지리학과 역사학의 학제 간 융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리포트⑫

[우리가 사는 세계]

현대 문명의 난제·도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기라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필자의 휴머니티스칼리지 강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근대성의 성취와 유산’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각자 자신을 탐색하게 하고, 이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생각해보게 하기위해 기획됐다.

요즘에는 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걸까?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라니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라는 설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해마다 일정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걸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풀어야할 숙제들로 가득하다. 인류 전체의 부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밥을 굶거나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시대와도 비할 바 없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원고갈의 위협에 놓여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그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처럼 현재 우리 문명은 여러 가지 난제와 도전 앞에 놓여 있다.

‘인간의 가치 탐색’과 함께 휴머니티스칼리지 필수 중핵교과인 ‘우리가 사는 세계’(이하 우사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과목이다.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배경이 된 사회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사세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대학생들은 자신이 왜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졌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 삶의 정치경제적 토대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생각에 기초하여 ‘발명’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이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 탐험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우사세가 제안하는 길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관념과 질서의 체계가 처음 등장한 근대 초기 유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근대 문명이 이룩한 대표

적 성취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생각을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룩되었는지 살펴본다. 교재에 담긴 근대 문명의 성취목록에는 과학, 계몽사상, 민주주의, 물질적 풍요 등이 있다. 이 ‘목록’을 살펴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근대 문명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인권이나 관용은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한국 정치는 얼마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

칙에 충실한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사세의 목표는 단지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우사세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학생들 스스로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근대 문명은 그 이전 시대의 문제, 모순, 딜레마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 문명이 그 이전 세계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힌트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 과목은 몇몇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단순한 ‘세계사’ 수업이 아니다.

치열한 스펙 경쟁은 취업을 위한 당연한 절차일까? 대학생들은 자신이 왜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진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유는 IMF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그 대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일까?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해법을 상상해볼 수는 없을까? 우리는 우사세를 통해서 이러한 물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재순서

1회 : 근로계약서와 계약내용
유의사항

2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3회 : 4대보험

4회 : 휴게시간 및 근무조건

5회 : ‘노동자’와 노동조합,
아르바이트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②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 강동구 피시방에서 일하는 김
섭섭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
급은 5000원으로 계약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근무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10시
부터 저녁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을 제하고 10시간씩 이틀이다. 섭섭
씨는 이렇게 4개월을 일했다.

총무로 P사 빵집에서 카운터 보
는 일을 하는 김성실 씨는 면접과정
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부실
한 근로계약서기는 했지만 시급
5500원에, 근무시간은 주 5일 17시
부터 23시까지 5시간씩이었다. 식
대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저녁
시간에 시간 조금 지난 빵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성실 씨는 이
렇게 6개월 일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
회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
이다. 우선 섭섭 씨와 성실 씨는 모
두 법적인 근로자, 노동자다. 또한
하술하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기에 명백하게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제6조(최저
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섭섭 씨
의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섭섭 씨는 근로계약서에 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급 5,000원으로 서명했다. 이럴 경
우 어떻게 될까?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
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
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
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
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
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자
세히 나와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 근로계약서는 5,210
원으로 계약한 것과 동일한 것으
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일단 최저
임금 위반만으로도 체불임금이 발
생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면 20시
간, 4주면 80시간, 4달이면 320시
간을 일한 셈이다. 지각과 결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320 곱하기 210
원인 67,200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28
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
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
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섭섭 씨의 고용주는 징역 또는 벌
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
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
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
려야 한다.] 이런 의무도 있으니 주
변 사장님들에게는 미리미리 알려
주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남아있
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
어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하
는 것이다. 물론 유급으로 말이다.
현행법상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
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
용되니 참고하자.

다행히도 우리 섭섭 씨와 성실 씨
는 모두 15시간 이상 일한다. 섭섭
씨의 경우 이틀만 일하지만 근로시
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의 적용대상자이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관계만 증명되면
적용되니 겁먹지 말자.

계산법은 간단하다. 주5일제라는
가정 하에 여러분의 일주일 근로시
간을 5로 나누면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다. 20시간
나누기 5는 4시간이기 때문에 섭섭
씨는 일주일에 4시간, 한 달에 16시
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4달
일했고(5,210원으로 계산한다.)주
휴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체불
임금은 333,440원이다. 위의 최저임
금 위반으로 인한 금액까지 합하면
400,640원이다.

한편, 성실 씨의 고용주는 최저임

금 이상을 주었지만 성실 씨가 일을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5,500원이 주휴수당이 포
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근
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성실
씨가 유리하다. 기준은 5,500원이
된다. 그러자 고용주는 “식대로 지
급한 빵이 사실 임금이다”라며 주
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
면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
화(通貨)’, 우리나라가 빵을 화폐
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고용
주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니 당당하
게 이야기해주자.

그럼 성실씨의 주휴수당은 얼마
일까? 하루에 5시간씩 5일 일했으
니 5시간 곱하기 4주, 20시간 곱하
기 6달을 하면 120시간 이다. 근로
계약을 5,500원으로 계약했으니
5,500원 곱하기 120시간, 660,000원
이다.

솔깃하지 않은가? 어찌 보면 분노
가 일기도 한다.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가 받지 못한 우리 노동의 대가
는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앞으로
는 잘 알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2014. 6. 17 news k 한강변 캠퍼스

참여마당

이창엽
스페인어학과 2014



여러분은 왜 고생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이른바 ‘꿀강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꿀강의의 기준은 대개 출석이
‘넉넉’하고, 과제가 많지 않으며 학점을 잘 부여해주는 것 등
이다. 결국 부담은 적고, 고생하기는 싫지만 좋은 성과를 원하
는 ‘욕심’인 셈이다.

이런 추세에 바탕은 일차적으로 사회에서 대학생에게 부여
하는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쳤지
만, 아직도 취업부터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 끊임없이 이어
지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
며,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과중하다.

그렇다고 ‘사회’탓만 할 수 없다. SNS에서 유통되는 ‘나레
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
문이다’와 같은 블랙유머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의욕과 열
정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꿀강의를 구해 좋은 학점을 얻
는다면, 취업을 위한 준비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배움’
은 놓치게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내면이 성장한다는 부분만
큼은 동의한다.**

우리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보자.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설립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는 ‘중핵교과’를 통해 학생
들이 실존적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문학
적 소양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등을 생각하는 커녕, 어렵
고 귀찮은 것으로만 간주한다.

심지어 수업을 듣는 과정은 결과 중심의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 ‘조별과제’에 함몰되고, 그 자체는 경시한다. 결국 자
기계발은 없고, 자기개발만 넘치는 상황이 도래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살피우는 스승 대신 성적을 잘 주는 교육서비스업
자를 찾고,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바람 대신 편리를 쫓는
욕심은 커진다. ‘진리를 논한다’는 대학과 대학생은 사라지
고 취업준비생만 남는다.

모든 학생을 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열심’인 학생도 상당수다. 다만 앞서 설명한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인 학생 역시 적지 않고, 결국 일차 피해자는 자신이다. 따
라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것만큼
이나, 스스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내면이 성장한다는 부분만큼은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성장해있는가. 생각을 게을리하
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풍자하는 그 마음이 튼튼
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니 어려움을 ‘피하려는 생각’ 이
전에 ‘해결해보려는’ 열정을 품어보자. 철은 담금질할 수록
단단해지고, 우린 아직 ‘철도 씹어 먹는’ 청춘이니까.

▶1면에서 이어짐

이 동안 루소 편에서 자신의 소신
을 굽히는 타협이란 일체 없었다.
이런 루소의 모습에 혁명기의 프랑
스인들은 열광하였다.

자연인 에밀은 어떤 인간성을 갖
고 있는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인
간 차이가 아니라, 만인 평등성을
믿는다. 화려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
는데 관심이 없다. 자기애를 이기심
으로 타락시키지 않고 인류애로 발
달시킨다. 괴로운 처지에 놓인 타인
에 대한 동정심을 느낀다. 죽음을
피해 오래 살기가 아니라 짧더라도
보람있게 살다 죽기를 택한다. 권위
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한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을 경쟁자로 삼아 진보한다. 도덕적
의무 자체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
에밀의 이런 인간 특성들은 루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사
회제도, 교육방침, 기성관습에 대한
거대한 도전임이 간파되는가?



루소의 모습에 혁명기 프랑스인들은 열광했다

루소의 ‘자연인’ 교육론은
루소 당시까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킨 사상 중에
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의 하
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진
동했던 지난 학기 모대학교 교양
강의에서 필자는 120명 가량의 수
강생들에게 물었다. “여태까지 살
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
해 타인을 위해 생명을 던지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
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손
을 들지 않았다. 스스로와 수강자
들에게 물었다. “왜 손을 들지 않았
는가요?”

이어서 필자가 말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남보다 더 잘 살아야한다는 말
을 들어본 사람 손들어 보시오.” 대
다수가 손을 들었다. 필자는 자신과
수강자들에게 물었다. “왜 손을 들
었는가요?”

3세기 전 ‘인간’ 에밀이 이원적 도
식을 가지고 현대인들을 압박한다.
나와 너는 정상인이나 불구자냐?
나와 너는 인간이나 비인간이냐?

2014년 교양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행복
KHU심리프로젝트
“행복!
방법을 찾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특강을 추천합니다.

- 대학생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
- 구제적으로 어릴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고 싶은 사람
- 내 삶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바꾸어 나가고 싶은 사람

주요 내용

-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과학적 심리실험 소개
-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 찾기
- 지금 내 삶에서 행복 할 수 있는 방법 알기
- 대학생활에서 행복방법 적용해보기

2014. 10. 02

■ 일시 | 2014. 10. 2(목) 12:00~14:00

■ 장소 | 멀티미디어관 411호

■ 문의 | 학생생활상담팀 연락처(031-201-2806), 메일(counsel@khu.ac.kr)

■ 주최 |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

